



슈퍼위원회,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 실패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미국 ‘슈퍼위원회¹⁾’는 11월 21일 「재정적자 감축안」을 위한 합의에 실패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.

- ‘슈퍼위원회’는 11월 23일까지 위원 12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1조 2,000억~1조 5,000억 달러 규모의 「재정적자 감축안」을 마련한 후 백악관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시한을 이틀 앞두고 협상 결렬을 선언함.
- 미국의 높은 재정적자 수준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비, 국방비 등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는 게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, 공화당과 민주당이 세수 확대와 재정지출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.
 - 공화당의 경우 감세를 지지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부자 증세에 반대하고 있으며, 민주당의 경우 의료 및 사회보장 지출 삭감안에 반대하고 부자 증세를 강력히 요구함.
-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기존 합의²⁾를 통하여 2013년부터 10년 동안 1조 2,000억 달러의 재정지출 삭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, 정치권 합의가 있다면 2012년 협상 재개도 가능한 상황임.

■ ‘슈퍼위원회’의 「재정적자 감축안」 합의 불발과 관련하여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의 미국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한 논란이 나타나고 있음.

- S&P와 무디스의 경우 ‘슈퍼위원회’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1조 2,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며,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사유가 없다고 설명함.

1) 미국 의회 내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의체로 공화당 의원 6명, 민주당 의원 6명 총 12명으로 2011년 8월 12일 결성됨.

2) 재정적자 감축안을 2012년 1월 15일까지 통과 및 효력을 발생하지 못 하거나 재정적자 감축액이 1억 2,000억 달러를 하회할 경우 2013년부터 10년 동안 1조 2,000억 달러 재정지출 삭감이 자동적으로 시행됨.

-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지출 자동 삭감의 경우에는 빠른 재정적자 조정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국 재정적자와 관련한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였으며, 특히 피치의 경우 11월 말 미국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였음.

(WSJ, FT, 11/22)